



 홍성문화원



- 논 단 | 홍성의 지명 변천 탐구(서부면)2 (조원찬)
| 용어로 바라보는 풍수지리 (김시환)
- 홍성의 전설 | 우리고장 홍성지역에 전해오는 동물 보은담 (김정현)
- 기행문 | 여행은 자유다, 꿈도 삶도 (정명순)
- 나의 삶 나의 예술 | 우당 이봉연 작가 (조성미)
- 홍성의 문화예술동아리 | 홍성 하모사랑 앙상블 (서다래)
- 시 & 수필 | 그대 그리운 날의 커피 (황정옥)
| 아리랑 유감 (김재천)
| 그래도 옷자 (이상현)
| 삐딱하게 (이애덕)
| 아이고 또는 I go (정명순)
- 독자기고 | 이제 울지 않아요 (김정명)
- 지역문화행사 | 홍성군립 합창단·홍성군립국악관현악단 거리공연 외

[홍성문화 표지] 휴식같은 친구
+



저 멀리 보이는 산은 홍성의 명산 용봉산이고,
그 앞에는 충남도청이 들어서 있는 내포 신도시입니다.
오른편에 외롭게 서 있는 나무는
수령이 약 3백년 된 버드나무입니다.
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 위치해 있죠.

이 나무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,
아버지 옆집의 옆집의 옆집의 아저씨와 함께
힘든 들일을 하면서 땀도 닦고 새참도 드시고
담배기 한잔 하시던 휴식같은 친구였죠.
지금도 가다가 저 그늘에서 쉬는 사람이 꽤 있답니다.

시절이 참 어렵습니다.
힘들 때에 먼저 손 내밀어 주는
휴식같은 친구가 필요할 때입니다.
우리 다같이 손잡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.

“코로나 물렸거라~~”

문화비전 선언

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.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.

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,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,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.

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, 우리 문화의 세계화,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.

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‘문화원의 날’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.

-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.
-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.
-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.
- 지방문화원은 일회적·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·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.
-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.

2007년 10월 10일